

주말경제

Economy

금리상승시
재테크 요령

■50대 맞벌이부부, 재무계획을 다시 짚다면...

정기보험, 장기펀드로 갈아타 자녀 결혼자금 대비를

Q 진도에 사는 맞벌이 공무원 부부입니다. 저는 53세이고 아내 50세이며 큰딸은 대학원 편입시험 준비중이고 둘째딸은 삼수로 대학시험을 준비중입니다. 맞벌이란 이유로 아무 계획없이 서로 쓰는 데 열중하다 보니 지금까지 목돈도 마련하지 못했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A 기씨부부의 경우 내 집은 마련한 상태고 시골에 투자용도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신용도가 좋은 공무원 맞벌이로서 가계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 기타 잡비 등으로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정기보험을 장기펀드로 운용, 자녀 결혼자금으로 저성장·저출산·저금리로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무위험 고정 금리형 금융상품으로는 미래의 중요한 재무목표(자녀 결혼자금, 본인노후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일고 있는데다 고령화로 은퇴후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 등을 추가로 가입하는 적극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기씨의 경우 은퇴 준비기간(8년)과 은퇴후 부부 공동 생존기간 등을 종합해 은퇴설계를 해보면 7억4천200만원의 은퇴자금이 산출된다. 부부생존기간생활비 5억8천만원, 부인 홀로생존기간 생활비 1억5천만원 등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인 필요자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자금 부족 추가 가입 필요 사교육비·생활비 줄여 변액연금보험에 투자를

자금)을 달성할 수 없다. 예컨대 4%의 고정금리 수준으로는 3%대의 물가상승율, 1%대의 세금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산투자·장기투자라는 2대 원칙을 잘 견지할 수 있는 수익증권과 변액보험 등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우체국에 가입돼 있는 정기보험중 연말에 수령 예정인 1천만원은 장기펀드로 옮겨 자녀결혼자금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정기보험 1천만원도 해지할 경우 실제수령액을 검토해 손실액이 적다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장기 투자상품으로 변액연금보험 권함=월 수입의 30%이상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해 적립식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 포함)나 변액연금보험으로 노후설계를 단단히 해야된다. 적립식펀드의 장점은 높은 투자수익과 조기환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원금손실 가능성과 높은 수수료(통상 연2.5%)가 단점이다. 적립식펀드 선택시에는 위험관리를 위해 2~3개 운용사 상품에 분산 가입하고 보너스 등 부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경우 추가 입금을 통해 적립액을 늘려 가면 좋다. 기씨는 25평규모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만큼

50대 공무원 맞벌이 기씨부부

변경전 재무상태표				변경후 재무상태표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정기보험금 2,000만원	신용대출 5,000만원	정기보험금 1,000만원					
투자용주택 8,000만원		투자용주택 8,000만원					
투자용토지 8,000만원		투자용토지 4,000만원					
자동차 3,000만원		자동차 3,000만원					
계 21,000만원	계 5,000만원	계 16,000만원	계 0만원				
순자산 16,000만원		순자산 16,000만원					

변경전 portfolio 수익률				변경후 portfolio 수익률			
구분	금액	기대수익률	portfolio수익률	구분	금액	기대수익률	portfolio수익률
정기보험금	2,000만원	4.2%	0.84%	정기보험금	1,000만원	4.2%	0.84%
투자용토지	8,000만원	0.0%	0.00%	장기펀드	4,000만원	10.0%	8.00%
계	10,000만원		0.84%	계	5,000만원		8.84%

변경전 현금흐름표				변경후 현금흐름표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근로소득 700만원	생활비 140만원	근로소득 700만원	생활비 120만원				
	교육비 250만원		교육비 230만원				
	대출원리금 250만원		변액보험 80만원				
	중신보험 50만원		적립식펀드 138만원				
	대출보증 10만원		장기주택펀드 62만원				
			정기보험 20만원				
			중신보험 50만원				
계 700만원	계 700만원	계 700만원	계 700만원				

불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고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권장한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으로 적립식펀드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일정시점(연금개시)이 되면 원금보장의 기능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 또한 적립식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연1.1%)하다는 것과 비과세, 추가납입, 중도인출, 다양한 연금수령방법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초기 가입비가 많이 단기에 성과를 내고 싶은 경우 불리한 점이 있으나 장기목표 달성에 적합한 상품이다.

◇퇴직연금보대출은 상환하라=부동산 투자는 보통 1년 단위의 돈이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인이나 생업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부담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안전성과 수익성을 견비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권하고 싶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는 구조조정 리츠와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펀드 등 3종류가 있으며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발표로 매매시장은 침체됐지만 유망한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인 부동산펀드는 직접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절세혜택이 많아 정기에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기씨가 보유하고 있는 95평의 땅에 대해서도 보유할 것인지 팔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땅이 목표포 하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거래가 금액을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하는게 맞다. 그러나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환금성, 유동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처분해서 위와 같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보대출을 상환해 매월 부담해 온 대출원리금을 적립식펀드나 변액연금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예기치 못한 일로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3개월이나 6개월 분의 비상자금을 마련해 뒀어 한다. 적절한 상품으로는 MMDA, MMF, CMA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MMF나 CMA의 경우는 카드, 공과금 등 각종 결제의 자금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연 4%이상의 이자수익을 제공해준다. 기씨 부부는 직업이 안정된만큼 3개월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상자금중 매월 얼마씩이라도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매월 50만원씩을 중신보험에 넣고 있는데 부부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적어도 1억 정도의 사망보험 보장금액이 필요하므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이나 기타 특약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좋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번주 재테크 자문단>



이규호CFP (광주은행) 고재윤CFP (씨스테이션 대표) 손석봉CFP (삼성생명)

◇이번주 상담자 : 이규호CFP(광주은행), 고재윤CFP(씨스테이션 대표), 손석봉CFP(삼성생명)
◇재산리모델링 신청방법(신청서 연락처 기재)
▲이메일을 통한 신청방법 : chy69016@naver.com, bungy@kwangju.co.kr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 062)524-4187, 062)222-4918
▲"다음카페"를 통한 신청방법 : www.cafe.daum.net/fpforum(광주FP포럼)

공인중개사 **7월 2일** **최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답문제풀이** **주책관리사** **광주고시학원** **237-9003** **871-000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7월 2일** **최전도** **핵심요약정리 + 단답문제풀이** **이론 심화 특강만** **361-0111** **829-0111**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www.ggjang.co.kr** **강사문의 : 1588-7509(취업공부)** **http://ggjang.co.kr**